

# 동구 총장로4·5가 빈집 활용 청년창업 프로젝트 '박차'

## 청년 창업자 10개팀 선발 매칭 완료 창업 지원금 지원·상권 활성화 기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9일 '총장로4·5가 빈집 청년창업 채용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 및 빈집 소유주와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장로4·5가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

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장로4·5가는 총장로 상인회가 중심이 돼 이번 사업에 대한 참여와 개발 의지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청년들이 창업하기에 많은 장점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에 눈

길을 끈다. 동구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 10팀(1차 5팀, 2차 3팀, 3차 2팀) 선발했으며 지난 29일 창업 아이템과 부합한 빈집·빈점포 매칭 절차를 마친 청년 창업자와 빈집 소유주 2팀에 대한 3차 약정식을 가졌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창업 공간 조성비 ▲임차료 ▲재료비·상품 개발비 등 초기 창업자금으로 최대 1천375만 원까지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금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총장로4·5가를 터전으로 새로운 꿈을 펼칠 청년 창업자 10팀이 매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청년들의 야무진 꿈이 지역 안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 온라인 개최 4차 산업 기업 등 총 80여 개 기업 참여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북구는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일까지 '당신의 내일을 두드리세요! 두드림(Do! Dream!)! 2021 광주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오이솔루션, 트로닉스, 현진기업 등 총 80여 개의 지역 4차 산업 선도 기업과 감소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는 '광주 북구 일자리매칭데이' 전용 홈페이지(<http://jobfair.incruit.com/gwangjubukgu>)와 '광주잡넷'에서 채용정보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구인기업과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매칭데이 기간 중 네이버, 한국철도공사 등 대기업 및 공기업의

취업정보와 현지 직원의 직무 경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라이브 직무토크쇼가 진행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MBTI분석, 퍼스널컬러 코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증정품이 지급되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 서구, 힐링 영양교실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역 주민의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완전정복, 힐링 영양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풍나물·버섯 키트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저염식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 대면교육도 시행한다.

만성질환자나 前 단계 고위험군인 서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우선으로 선착순 모집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만, 금요일만으로 구분해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3주 동안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식단교환법, 나트륨 적게 먹는 방법, 식사일지 작성 및 저염식 요리법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풍나물·버섯 키트 재배 과정 및 저염식 요리 완성 사진을 카카오톡에 게시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교육,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혈압·혈당계 무료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062-350-4173)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예교실'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남구에 따르면 공예산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슬기로운 공예교실'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양과동에 위치한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진행된다. /남구 제공

##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서 '공예' 배우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예교실'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남구에 따르면 공예산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슬기로운 공예교실'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양과동에 위치한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재능 기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슬기로운 공예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작품 및 공방을 관람하면서 작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예기술을 배우게 된다.

참가자 모집 분야는 도자기를 비롯해 섬유, 종이, 금속, 가죽, 대금 및 전통 연 날리기 등 6개 분야 18

개 강좌이다. 모집 인원은 각 강좌당 선착순 10명이며, 연 만들기 및 날리기 분야는 20명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1~2만원 수준으로 참가자 몫이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2일까지 전화(062-674-2070)로만 접수를 받으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 "광산구 외국인 자율접종 통했다"

### 18세 이상 외국인 접종 지속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자율접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5천55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대성공을 거뒀다. 이를 발판 삼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의 예방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1개국 외국인주민 3천544명(30세 이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이 안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2천805명의 126.3%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24일에는 30세 미만 외국인주민 1천81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 역시 계획한 1천500여 명보다 많은 숫자다. 같은 기간 광산구보건소에 선 199명의 외국인주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접종에 참여한 광산구 외국인주민은 5천554명이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종 기회를 보장한 광산구의 적극행정이 그동안 숨어있던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백신을 맞으려는 외국인주민이 몰리면서 광산구는 광주시로부터 400명분 안산 백신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주형탁 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물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